

편 집 후 기

김영철 : 시원 섭섭합니다. 지방에서 열린 편집회의도 생각나고... 2년간 함께 한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김오영 : 4년간 편집활동 무탈-무능력-무변화-반성-기대-제도약..., 편집이사님 수고 많으셨고, 컴퓨터를 꾸며주신 하창식 교수님, 김정안 박사님, 특히 (고) 이철주 박사님 등등... 모두 감사합니다.

김인선 : 편집이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

김재경 : 그간 편집일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.

김흥균 : 그동안 함께 한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박 민 : 최선을 다짐했던만 차선으로 점철되었습니다. 적지 않은 시간,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편집위원님들, 학회의 이기옥 과장님께 감사합니다.

백현종 : 많은 것을 배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
원종찬 : 1월엔 바빠서, 3월엔 충청도에 눈이 많이 와서, 중간부터 참여하고, 내년에도 또 일을 하렵니다. 능동적인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렵니다.

이원규 :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기술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황진택 : 내년에도 좀더 알찬 기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
김성수



김영철



김오영



김인선



김재경



김종만



김흥균



박 민



박원호



백현종



손병혁



원종찬



이원규



정혜선



황진택